



모멘텀 부재 속의 지지력 모색

한범호 (02) 3772-1569 hanbeomho@goodi.com

메마른 모멘텀 속에 타진하는 하방 지지력

모멘텀 기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변수들

모멘텀 기근이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은 동반 둔화되었고 막바지에 다다른 3분기 기업들의 어닝스나 무계중심이 4분기 이후 경기 개선세의 지속성 여부로 이동한 매크로 지표도 이전과 같은 추진력을 증시에 주입하지 못하고 있다. 메말라가는 거래는 증시의 에너지를 떨어뜨려 장세 대응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전일 KOSPI는 15pt의 좁은 구간의 제한적 등락에 머물렀다.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해소가 장세 대응의 선결 요건임은 전일 증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7개월여 만에 도래한 KOSPI 20일-60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선에서의 하방경직성을 기대

그러나 1,550pt를 전후한 버티기에 이틀째 성공한 전일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유지시킨다. 1,550pt대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선(12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린 지수대이며 지난 7월 이후 본격적인 지수 상승세가 나타날 당시의 변곡점 및 그 이후의 지지선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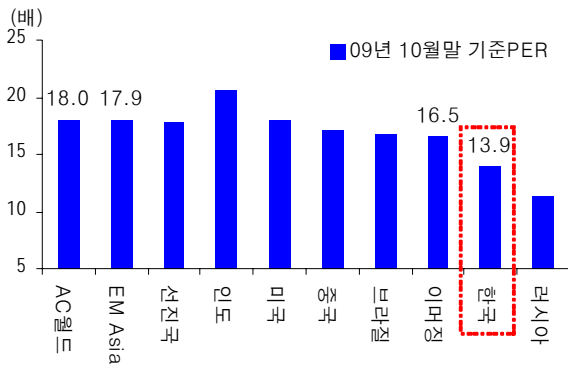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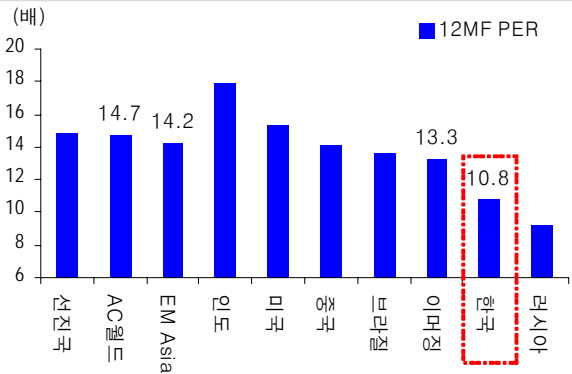
또한 주가지수의 하락과 맞물리며 재차 부각되고 있는 국내증시의 가격 메리트도 기대를 걸어보게 만든다. 이익추정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증시의 12개월 선행 PER이 11배 이하까지 하락했다는 점이나 이머징 증시 전반과 비교했을 때 10월말 현재 국내증시의 가격부담감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향후 지수의 추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증시 10월말 기준 PER



자료 : MSCI IBES

글로벌 주요증시 12개월 Fwd PER



자료 : MSCI IBES

경기선에서의 지지력 형성 여부에 주목

경기선에서의 지지력 형성 기대감

지수는 전일까지 옛세제 하락했다. 하지만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 소식이나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급락세를 추스리는데 성공한 전일 증시는 단기 저점을 타진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시킨다. 전일까지 견조한 매수세를 이어간 외국인들의 동향이나 안정세를 유지한 환율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큰 흐름에서 국내 증시에서 불안심리의 안정 여부가 우선이겠지만, 단기 급락이후 경기선에서 지지를 통한 하방지지력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해 본다.